

» 이슈N뉴스

금융IT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살펴봅니다.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변화의 바람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020년 2조원대에서 2022년 3조원대로 경총 뛰어오를 전망이다. 또 디지털 금융 시대를 맞아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간 힘겨루기는 다소 완화되고, 공정경쟁 시대의 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디지털 뉴딜 활성화, 클라우드는 내 운명 ①

클라우드 중심으로 산업 재편, XaaS로 패러다임 변화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고자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주요 과제들은 클라우드를 핵심 인프라로 하고 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8. 12.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개소식에서)

클라우드는 앞으로 다가올 데이터 시대의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 적용이 확대되고 비대면 업무환경이 조성되면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 전망.

✓ 이슈 분석 클라우드의 진화 : 컴퓨팅 ▶ 서비스

김은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디지털혁신기술단장은 지난 6월 16일 '2020 클라우드 DX 세미나'에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서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XaaS(Everything as a Service) 클라우드 서비스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소개.



XaaS 클라우드 서비스

각종 서비스·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형태. 일반적으로 IaaS(인프라: MS 애저), PaaS(플랫폼: 아마존 웹서비스), SaaS(소프트웨어: 오피스365)로 분류.

디지털 뉴딜 활성화, 클라우드는 내 운명 ②

블록체인과 클라우드의 만남, BaaS도 뜬다

최근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이 클라우드와 만난 BaaS(Blockchain as a Service) 관심 높아짐.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 5월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BaaS 시장이 연평균 약 40%씩 성장,
 2027년 250억 달러(30조원) 규모까지 성장 예측.

BaaS 산업 동향

 Microsoft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에 서비스형 이더리움 블록체인 EBaaS 접목
 IBM	리눅스오픈소스 하이퍼레저 기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공개
 삼성SDS	금융·물류·공공 등 분야에서 접목할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 개발
 kt	블록체인 사업 지원 플랫폼 '기가체인' 공개
 A256	'루니버스'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서비스 'DID' 공개 예정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다음 시대를 열다

함기호 한국HPE 대표는 지난 7월 14일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엣지에서부터 클라우드까지 연결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IT기업으로의 구상" 발표.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
 사용자(기기) 주변의 엣지 데이터 센터에서 정보를 처리해 2차 작업을 중앙 클라우드에 맡기는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 시간 단축, 보안 수준 강화.

금융사·빅테크 공정경쟁 시대 열리나 ①

네이버, 금융데이터거래소 참가 선언

“AI 기술로 분석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하겠다.
이 데이터가 국내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7. 14.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 중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최근
금융데이터거래소에 참여. 아직 등록된
데이터는 없지만, 네이버페이 결제나
포인트, 선불 전자 충전금 등에 대한
이용 수치와 트렌드 등을 공개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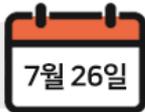
▲ 금융데이터거래소에 참여한 네이버파이낸셜 (금융데이터거래소 캡처)

한편,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과 KB금융이 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 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특히 카드사의 데이터 상품 판매가 순항 중. 카드사가 제공한 총 데이터 양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제공한 것보다 훨씬 많음.

데이터 거래 상품 수 총 175건(신한카드 68건·국민카드 45건·삼성카드 18건)
카드사 총 데이터 양 은행(116건), 보험사(23건), 증권사(24건)

금융사·빅테크 공정경쟁 시대 열리나 ②

시간대별로 본 금융사·빅테크 행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둘러싸고 금융권과 빅테크 간 견해차 제기.

금융권 vs 빅테크 주요 견해차

금융사	구분	빅테크
은행은 특정 보험사 상품 25% 이상 판매 안돼	보험상품 판매	상품 광고일 뿐 '판매' 아냐
건전성 규제 없이 사실상 신용 공여	후불결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따라 건전성 관리
빅테크 쇼핑·검색 등의 정보도 줘야	마이데이터 사업	결제 데이터 외에 검색 정보 등은 공유 안돼

금융당국, 빅테크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 관련 업체들의 빠른 사업 진출 및 확장에 맞춰
 ●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 금융플랫폼 등 영업행위 규율체계 마련,
 ● 빅테크 협의체 가동 등을 담은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비.

금융과 ICT의 융합 바람

금융사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움 받거나 온라인 기반의 가입자를 제공 받아 사업 구조 개편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빅테크·통신사 등에서도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신규 시장인 금융 분야 노하우 습득, 규제 회피 등의 이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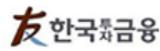
네이버파이낸셜+미래에셋캐피탈 = 소상공인(SME) 대출

네이버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빅데이터를 참고해 자체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만들었고 미래에셋캐피탈은 이를 바탕으로 SME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

KT+우리금융지주 =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분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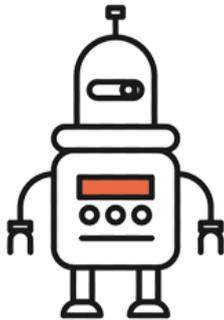
합작회사 설립을 포함한 공동 마케팅, 공동 영업 등 디지털금융 전문기업 설립 실무 논의 중.

금융사·ICT 협력 사례

-  kakaobank ×  한국투자금융 ▶ 카카오횡 1대(카카오)와 2대(한국투자금융) 주주
-  하나금융 ×  SK telecom ▶ 생활금융 플랫폼 '핑크' 공동 운영
-  KB 국민은행 ×  LG유플러스 ▶ 알뜰폰(MVNO) 서비스 '리브엠' 협력

AI,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금융권에서 AI가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 상품이 금융업계 블루칩으로 부상.
'로보어드바이저(RA)'란 용어로 통용. 리스크를 피해야 하는 금융권 특성을 고려하면
AI투자 상품 전면 도입은 이례적.



 신한금융그룹

AI 투자자문 플랫폼 '네오' 올해 초 출시

December.

자사 RA '아이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투자 전망 발표

funt

자사 AI알고리즘을 토대로 대형 보험사 변액보험 상품 자산운용 시뮬레이션

실제 성적표는 어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센터(코스콤)는 상용화된 RA 수익률 성적표 공시.
누적수익률 20~30%대를 상회하는 RA가 상당수로 분석

-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